

단국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답안 (오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1) [가]의 주제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찾은 후, 그 단어에 기초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2) [나]에서 [가]의 주제어와 유사한 개념의 단어 하나를 찾은 후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입장에서 [다]의 주장을 요약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빛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 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 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잡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출처: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

[나]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나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출처: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다] 아까 말한 대로 공정 무역에 동참하면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 그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셈이지.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원조를 하거나 수출품을 사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민과 같은 직접 생산자들에게는 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게다가 힘센 선진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난한 생산자들이 경쟁적으로 원료와 상품, 노동력을 헐값에 넘겨야 하니 계속 손해를 보게 되거든. 그만큼 더 벌기 위해 그들은 더 많이 일해야 하고, 결국 이들은 일을 계속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돼. 이렇게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지는 현실에서 공정 무역 등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정의의 경제’를 실천하는 거야.

출처: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문제 2]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와 [라]의 상황을 추론한 후, [다], [라]에서 추정되는 연구자의 태도를 각각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성격과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1940년대 미국의 원자 폭탄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이후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핵무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처럼 연구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며 객관적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연구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연구 자체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강운선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한 생명 과학 연구자가 동물 실험을 통하여 특정한 약이 특정한 암을 치료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에게 적절한 투약량을 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자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피험자들이 위험성이 거의 없는 실험에는 기꺼이 응하지만, 위험이 따르는 실험에는 지원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구자는 이 임상 실험 피험자의 20~30%가 장기간 메스꺼움으로 고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보를 피험자들에게 알린다면 아마도 그는 충분한 숫자의 피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특정한 암을 치료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약품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갈릴레이는 자신이 발견한, 목성을 도는 위성에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는 당시 토스카나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메디치 가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자신의 책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를 토스카나 대공이었던 코지모 2세에게 헌정했다. 그 책에서 코지모는 우주에 연결되었고, 코지모 1세는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에 비유되었다. 이와 함께 코지모 1세의 미덕이 네 개의 위성을 통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는데, 코지모 2세와 그 형제들은 위성의 수와 마찬가지로 네 명이였다. 설명을 들은 코지모 2세는 매우 흡족해하며 갈릴레이를 ‘대공의 철학자 겸 수학자’로 임명했다. 갈릴레이는 위성의 발견을 과학적 성과로 공표하기보다 유력한 군주의 가문과 연결시킴으로써 궁정인이 되고 싶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출처: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 3] [가]와 [나]를 근거로 [다]의 도표가 의미하는 것을 해석한 후, [라]에 함축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추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사회 불평등은 어떤 사회의 개인들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고 그 분배가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권력, 재산, 소득, 교육 기회, 건강 관리, 주거, 여가, 명예 등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 사회 불평등은 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 직업 만족, 금융 기관의 신용 등급 등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 결과 사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은 모든 사회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소득 분배란 생산에서 발생한 가치를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시장의 분배는 자원 분배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의 공정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 상대적 박탈감, 계층 간 갈등과 사회 불안을 불러와 건전한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을 통해 분배되는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사치품의 소비에 대해서 높은 소비세율을 부과하는 등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표 추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니 계수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5분위 비율	6.65	7.09	7.38	7.70	7.74	7.86

*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소득 불평등 지표라 한다. 지니(Gini)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표시된다. 5분위 비율은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출처: 김종호·안병근, 『고등학교 경제』

[라]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 주지? 돈도 넣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 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즐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팔뚝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 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 또 —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출처: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